#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꼭 온다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세상 모든 독자들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을유년(乙酉年), 곧 닭의 해입니다.

## 닭의 교훈

70·80년대 유신독재와 신군부 억압의 참혹한 시절에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꼭 온다!"라고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은유어법이고 시적표현이니 긴급조치나 계엄법에 걸릴 것도 없고 체제전복을 꾀한 것도 아니었으니 이 말은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어 모두가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닭의 "꼬끼오!"소리와 상관없이 새벽은 꼭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새벽을 알리는 닭의 소리는 나름대로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먼저 새벽이 왔다고 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늦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새벽을 알리는 종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러운 쓰레기를 제일 먼저 말끔히 치우는 미화원아저씨들의 자세로 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을유년 새 아침에 새삼 닭과 얽힌 얘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새벽 닭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닭은 가축 중 새벽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제때에 분명히 일러주는 동물입니다. 닭의 "꼬끼요!" 소리는 새벽을 상징합니다. 새날이 왔으니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일할 채비를 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닭처럼 동트는 새 아침을 알리는 희망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닭의 해인 올해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고 순국선열들과 민주화와 통일선구자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어미닭에게서 보편적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고대 종교문학가들은 닭이 오리알 등 다른 동물들의 알을 품어 준다는 동물학의 원리에서 닭을 차별없이 타인을 받아주는 보편적 사랑의 주인공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알뿐 아니라 남의 알을 돌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자녀와 가족을 잘 보살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을 넘어 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섭게 꾸짖기도 합니다. 사실 동물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순수함과 정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닭에게서 배울 많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셋째, 닭은 우리에게 알을 주고 또 끝내는 우리에게 먹이가 됩니다. 참으로 고마운 동물입니다. 매일 알도 주고 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니 닭이야말로 헌신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선열들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려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먹이가 되는 동물들도 생각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원리, 자연의 신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주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도 하느님 안에서 일정한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약한 동물들은 번식력이 강하고 또 재빠르게 움직이고 도망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동물들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자연의 원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풀은 땅에서 자라나고 동물들은 이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을 늘 잡아먹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의 신비, 먹이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결국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순국선열들과 민주화와 통일의 선구자들은 우리 후손을 위해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사랑과 헌신의 화신들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닭을 우리 삶의 길잡이,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닭을 통해 부활의 신비 곧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민족전체를 살리는 이 큰 신비를 묵상하며 배우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해방 60주년을 되새기며

2005년은 1945년 일제 탄압에서 해방된 지 60주년, 그리고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40주년 그리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겨레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신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삶과 함께 3·1독립운동의 선조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김구 선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새해를 뜻있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열들께 역사적 빚을 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삶은 바로 순교자들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겨레와 민족 독립을 위해 불철주야 뛰셨습니다. 안 의사의 삶과 목적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들려준 유언에

서도 안 의사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해방될 때 내 뼈를 고국 땅으로 옮겨다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늘 하느님께 기도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의사에게도 연세 드신 어머님이 계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의사는 하느님과 겨레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고 과감하게 자신의 온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아들의 결단을 듣고 아들의 사형선고 소식을 들은 안 의사의 어머니는 그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애통하셨던 성모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우리나라를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와 이러한 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길잡이이며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 진지한 몸과 마음으로 순국선열을 생각하며 2005년 새해가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 묵념의 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한평생 조국의 해방을 위해 중국 땅에서 투신한 김구 선생은 "만일 하느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첫째도 조국독립이며 둘째도 조국독립 그리고 세 번째도 조국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은 가히 순교적 결단과 같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순국선열들은 참으로 겨레사랑과 민족통일의 스승이며 길잡이입니다.

### 한일협정 40주년의 부끄러움을 되씻어야

또한 올해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 협정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본 만주사관학교 출신으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박정희는 1948년 공산당의 프락치로 남로당원으로 암약하다가 동료들을 배신한 채 연명하여 다시 일제 잔재자들과 손을 잡고 군생활을 하던 중 1961년 5월에는 4·19 민주혁명의 꽃을 꺾고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끝나면 군대로 복귀한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채 헌법을 짓밟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수많은 시민, 학생, 청년, 지성인들을 총칼로 억누른 채 5억불을 받고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피맺힌 아픔을 안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고 돈 몇 푼에 다시 우리나라를 일본에 예속시킨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픈 제2의 을사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꿈꾸며 유신억압 체제를 세웠다가 결국 김재규 부장에게 사살 당했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의 다짐

해방 60주년, 부끄러운 한일협정의 40주년 그리고 또한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5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을 반복치 않고 남북이 대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며 참된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제와도 굴욕적으로 협약을 맺은 우리가 동족인 북한을 여전히 배제하고 북한에 대해 사랑과 이해를 갖고있지 않다면 그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욕이며 민족사적으로 큰 죄악입니다. 남북의 일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한해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3중의 겹쳐진 큰 뜻과 교훈이 담겨있는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통일 정신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민족이 하나 되도록 간절히 염원하며 실천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열들을 기리는 국민의 의무이며 도리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세 웅**